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6차 선정 결과 3개소 추가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4일(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총 3개소(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가 선정되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과 30여 차례에 걸친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난 10월 참여기관 모집에 착수하였다.

이번 6차 선정을 끝으로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하여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를 감축(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하고,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병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에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새로운 분류기준을 도입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동참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임상-수련-연구 균형 발전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기대된다” 라며,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2차, 1차 의료기관도 본래 기능에 집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 참고 : 선정기관 구조전환 주요 사례 >

① 중증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강화

< 3개 병원 일반병상 감축 현황 >

- 삼성서울병원 1,692 → 1,459 (233병상 감축)
- 울산대학교병원 832 → 792병상 (40병상 감축)
- 인하대학교병원 775 → 709병상 (66병상 감축)

< 중환자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획 >

【A병원】 ^[인프라] ▲ 심뇌혈관 전문인력 교육, ^[운영체계] ▲ 지역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이송-최종 치료까지 신속관리 네트워크 구축, ▲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한 응급 이송체계 개선, ▲ 심뇌혈관질환 응급 다학제 진료체계 구축, ▲ 중증외상환자, 심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표준진료지침(CP) 개선, ▲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고위험 분만 응급 진료체계 강화

【B병원】 ^[인프라] ▲ 심장혈관·뇌질환 관련 핫라인 운영, 전용병상 마련, ▲ 고위험 산모·태아 전용 집중치료병상 확장, ^[운영체계] ▲ 응급환자 신속 수술연계, 중증상병 재실시간 관리 통해 후속진료연계 강화, ▲ 소아심장 등 전문 의료진이 취약지역 협력병원에 진료지원하여 협력심층진찰 프로세스 확립, ▲ 지역 내 외상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 모의훈련 통해 선제적 대응준비

【C병원】 ^[인프라] ▲ 중증소아를 위한 소아전용 수술실 신설, ▲ 중증환자 음압 격리 중환자실 증설, ▲ 뇌혈관질환 교육전담 간호사 증원하여 예방 및 재발방지 등 교육 강화, ^[운영체계] ▲ 권역 내 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중증응급질환 환자상태에 대한 '전문인 알림 시스템' 및 중증응급환자 핫라인 운영 유지, ▲ 응급환자 후속진료 인센티브 제도 운영 및 모니터링

② 단순 환자 의뢰회송에서 벗어나 질적인 진료협력체계 강화

< 강화된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

【A병원】 ▲ 자체 개발 의뢰·회송연계 시스템 활용하여 환자상태, 병력, 진료이력 등 정보공유를 통해 진료 연속성 강화, ▲ 전문의뢰 환자 전용 신속진료예약 슬롯 운영, ▲ 회송 후, 재의뢰 환자 전용 창구, 핫라인 및 공유 전산프로그램 구축, ▲ 협력병원 대상 의뢰·회송 교육, 벤치마킹 지원 및 진료컨설팅 제공, ▲ 협력병원 만족도 조사 및 외래회송 병원 이용률 향상을 위한 해피콜 시행

【B병원】 ▲ 의뢰·회송 e-form 서식, EMR 연동 및 회신서 발송 기능 등을 전산시스템 개발하여 전문의뢰 인프라 확충, ▲ 진료협력병원 전용 패스트트랙 프로세스 운영, 환자 회송 후 상태 악화 시, 본원 신속진료 연계, ▲ 진료협력병원 대상 e-consult를 활용한 진료컨설팅 제공

【C병원】 ▲ 협력병원 간 중환자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용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 중환자 전문 의뢰·회송 전담 간호사 배치, ▲ 진료협력센터 인력충원 및 전문 의뢰·회송 팀 구성하여 의뢰·회송 강화, ▲ 응급환자 대상 Dr to Dr 핫라인 운영 강화하여 의료진 간 직접 연결, ▲ 협력병원 의료진 대상 역량강화를 위한 집체교육 등 시행 및 환자 케이스에 대한 양방향 진료 컨설팅 제공

③ 팀 기반의 업무재설계 ⇨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체계 구축 인력의 감축 없는 안정적 운영, 교육훈련 등 통한 처우 개선

<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인력 운영을 위한 계획 >

- 【A병원】** ▲진료과별 팀(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구성하여 병동·외래·수술실 진료 및 업무지원,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24시간 on-call 시스템 강화하여 신속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효과적 의사소통 위해 원내 보고시스템 활용하여 긴급도에 따른 보고체계 재설정,
▲신규/경력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 구축하여 현장실무 및 술기 교육
- 【B병원】** ▲진료지원간호사 직제를 일반/특수처치, 수술 전담 등으로 구성하고, 진료과별 팀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운영, ▲진료지원간호사 경력개발 track 구축하고,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교육과정 설계 및 인력 배치·평가 등에 반영,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진료과
특화 프로토콜 및 특수 술기 중심 교육 제공
- 【C병원】** ▲진료과별 전담간호사 배치하여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등 부서별 진료지원 위임업무
수행, ▲업무관련 이론·실무교육, 술기평가 실시 및 학술대회 등 참석 지원하여 진료
지원간호사 역량 강화, ▲병상축소에 따른 여유인력을 진료지원간호사 전환배치 및
모니터링 통해 적정 인력 충원

④ 수련 기능 강화를 통해 임상과 수련의 균형적 발전 도모 전공의가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계획 >

- 【A병원】** ▲임상술기 시뮬레이션 실습 확대 및 지역 협력병원과 네트워크 수련기회 제공, ▲수련
과별·연차별 교과과정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표준안 제시, ▲병동업무 전산 등록·
수행·관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전담간호사 육성하여
전공의 업무 부담완화
- 【B병원】** ▲전공의 사용공간 점검 및 개선사항 확인하여 근무환경 개선, ▲특성화된 임상술기,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모듈화 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진료과별 교육담당 지도전
문의 지정 및 운영, ▲지도전문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행하여 수련
질 향상 관리
- 【C병원】** ▲근무환경 개선위해 업무지원 간호사팀 운영하여 전공의 의존도 감소 및 비교육 활동
또는 행정업무 경감, ▲책임지도전문의 지정하여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개인별
체크리스트를 통한 수련 달성 지원, ▲1, 2차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립
하여 1차 의료 경험 제공

담당 부서 (총괄)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책임자	과 장	유정민 (044-202-1870)
		담당자	사무관	성경은 (044-202-1873)

